

성도의 교제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여 교회의 양육과 목양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에 담임목사 혹은 안내자에게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

1. 예배시간 전에 오셔서 찬양과 기도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2. 「말씀과 기도로 열매맺는삶」을 활용하세요.
*말씀묵상, 성경암송, 성경일독, 순모임 자료
3. 식사 준비 및 정리 :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4. 오늘은 성찬식이 있습니다.
5. 가을 소풍(10.6. 주일 오후)을 계획 중입니다. 기도해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 기도 제목

- 우리나라와 한국교회,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
- 함께하는 주일학교와 남산교회를 위해
-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되도록
- 자녀들과 성도들의 가족을 위하여, 군복무 중인 황정필 형제를 위해
- 이강진 집사님 부모님, 이미정 성도님 아버지, 정주리 성도님 어머니, 최수연 사모님, 최재욱 성도님 어머니, 하유미 성도님 어머니 건강, 장윤경 사모님 아버님을 위해
- 김윤기 목사님 사역과 가정을 위해

■ 섬기는 분들 ■				
		이번 주(9/29)	다음 주(10/6)	10/13
기 도	주일오전예배	이강진 서리집사	박철호 서리집사	이승재 전도사
	주일오후예배	이윤경 성도	최수연 성도	하유미 성도
성경 봉독		하유미 성도	황근하 성도	박철호 서리집사
식사 준비		권두진, 이빛나	-	이윤경 순
정리		-	-	이강진 순

* 주보와 유인물을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 헌금과 후원을 위한 계좌 - 국민은행 474501-01-143450 (예금주: 열매맺는교회)

담임목사 김 윤 기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86-14(개포로 506) 청우빌딩 601호 / 02-3412-1012



제6권 39호 2019.9.29.

바 른 신 학
바 른 교 회
바 른 생 활

주 일 오 전 예 배

오전 11시 00분

인도 김윤기 목사

찬 양	다	같	이
♣예 배 부 름	인	도	자
♣기 원	인	도	자
♣송 영	찬송가 23장	다	같	이
♣신 앙 고 백	사 도 신 경	다	같	이
♣참 회 와 용 서	다	같	이
회 중 찬 송	시편찬송 110장, 찬송가 31장	다	같	이
시 편 교 독	시편 128편	하	유	미 성도
목 회 기 도	인	도	자
설 교	야고보서 1장 9-11절	김	윤	기 목사
[교회의 영광]				
< 성 찬 식 >				
찬 송 과 기 도	찬송가 546장	다	같	이
교 회 소 식	인	도	자
기 도	헌상과 성도의 교통을 위하여	이	강	진 서리집사
♣찬 송	찬송가 383장	다	같	이
♣축 도	설	교	자

♣ 표는 일어섭니다.

주일오후모임

오후 2시 30분 인도 : 김윤기 목사

찬 송: 다 같 이

기 도: 이윤경 성도

주 제: 특강 종교개혁사 마무리

합심기도: 다 같 이

주기도문: 다 같 이

수요 기도회

오후 8시 인도 : 김윤기 목사

요리문답: 하이델베르크요리문답 39주일

찬 송: 다 같 이

본 문: 시 59:1-10

설 교: 나의 요새

기 도 회: 다 같 이

주기도문: 다 같 이

- 예배 및 기도회 -

주일오전예배	오전 11시 00분
주일오후모임	오후 2시 30분
수요 기도회	오후 8시 00분

- 함께하는 주일학교 -

영아유치부	주일 오전10시30분
-------	-------------

* 남산교회와 함께 모입니다.

- 성경 공부 -

소그룹나눔	주일 오후1시00분
새 가 족	주일 오후1시00분

□ 하이델베르크요리문답 39주일 - 십계명에 관하여

104문: 제5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나의 부모님, 그리고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에 모든 공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나타내고, 그들의 모든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대해 합당한 순종을 하며, 또한 그들의 약점과 부족에 대해서는 인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손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 설교 노트: 약 1:9-11, 교회의 영광

1. 시험이 들어오는 경로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험에 간섭하셔서 우리를 온전함으로 인도하십니다. 또한 지혜를 주십니다. 그중에서도 당시 교회가 받던 강력한 시험은 부에 대한 유혹이었습니다. 세상의 부는 많은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 요인이었습니다.

2. 다 지나갈 것

이에 대한 야고보의 대답은 우리 안에 있는 참된 가치를 자랑하는 것(9절)과 세상의 부는 다 지나갈 것(10,11절)이라는 지혜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만큼 크고 강력하지만 그러한 것들은 모두 지나가고 사라질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갈망은 항상 주님의 백성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 요인이었습니다. 세상의 화려한 현실은 주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갈망하게 하였습니다(삼상 8:20). 이사야 때에도 화려한 바벨론의 영광에 현혹되었는데, 그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그것들은 모두 시들어버릴 꽃과 같다 말씀하셨습니다(사 40:6,7). 세상의 화려함에 현혹되어 시험에 들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마 6:24). 재물이 도구에서 갈망으로, 갈망에서 주인으로 발전합니다. 섬김의 도구가 섬김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 경고하십니다(눅 6:24-26). 그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이므로 세상의 부가 가장 큰 영광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박탈감을 느낄 필요도 없으며, 조금함이나 패배의식에 빠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 부가 가진 결말을 아는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헛된 자랑에 흔들리지 말라고 하십니다(전 12:13,14).

3. 교회의 영광

주님의 교회는 그 안에 있는 높음을 자랑해야 합니다(9절).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가진 것들을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졌습니다(요 1:12). 그것이 우리의 높음이요,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서 대하시며 우리를 위해 역사하십니다. 시험조차도 연단의 도구로 삼으셔서 우리를 온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약 1:2-4). 지혜가 필요할 때는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십니다(약 1:5-8). 신자의 영광은 로마제국의 영광과는 사뭇 다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를 빛어 가시는 과정은 전쟁터와 같고, 그 안에 있는 우리는 연약하고 실패한 사람들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 속에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시 23:4). 그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교회가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온전하게 빛어 가십니다. 이것이 교회의 영광입니다.